

세계약학약사연맹(FIP) 서울총회 유치 및 개최 행적을 통해 본 약사의 발전 방향

주상훈¹, 방준석², 백경신^{3*}

¹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²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³대한약사회
(2017년 11월 5일 접수 · 2017년 11월 17일 수정 · 2017년 11월 20일 승인)

Past and Future of the 77th FIP World Congress in Seoul

Sang Hoon Joo¹, Joon Seok Bang², and Kyung Shin Baek^{3*}

¹College of Pharmac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²Graduate School of Clinical Pharmac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³Korea Pharmaceutical Association, Republic of Korea

(Received November 5, 2017 · Revised November 17, 2017 · November 20, 2017)

ABSTRACT

Keywords:

FIP
World congress
Pharmacists
Pharmaceutical science
Seoul
Korea

At the FIP General Assembly held in Amsterdam, Netherlands in 2012, the Seoul General Assembly was all over in five years. Of the more than 30 countrie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there are no more than 10 countries with well-organized pharmacy associations. The reason why the government and social organizations listen to the claims of the pharmacy association is because the pharmacy association is not a simple profit group but an important functional group and expert group. And FIP is a coalition of pharmacists / pharmaceutical science groups around the world. Korea, the Pharmacy Society and the Pharmacy Society are members of the FIP, respectively, and a total of 139 organizations worldwide are members of the FIP. The role of pharmacists in our 100-year-old era is challenged by many changes and challenges, and it is very important for WHO and FIP that these new roles are settled efficiently at the global level. It is the FIP General Assembly where we can share many things we need to learn about these activities, and this FIP General Assembly was held in Seoul, Korea. As a high-level pharmacists and top-notch pharmacists, I think that now, as a global citizen, it is a driving force and opportunity to become a world-class pharmacist and a pharmacist who teaches happily. It would be more meaningful to wait for the FIP Seoul General Assembly's effectiveness and performance rather than to express it hastily, leaving the next generation to evaluate it.

서 론

2017년 서울에서 열린 FIP 총회를 준비단계부터 따져본다면 그 시작이 2011년, 또는 이보다 더 훨씬 전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대한약학회 회장에 정세영

교수께서 취임하신 이후 저자는 국제위원회 간사로서 활동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 때 이미 정세영 약학회장의 지휘 아래 FIP 서울총회를 유치하기 위한 계약조건이 무엇인지, FIP본부 측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조직위원회에서 책임져야 할 것과 준비가 필요한

부분을 살피기 시작하였다.

2012년 암스테르담에서 있었던 FIP총회에서 당시로서는 2016년도 서울총회 개최를 목표로 정세영 회장 이하 이범진 당시 대한약학회 사무총장, 오유경 국제위원장과 함께 유치단이 조직되었고, 암스테르담 현지에서 오유경 교수가 서울 유치의 당위성을 1) 서울이 국제회의 장소로서 얼마나 매력적인 장소인지에 대한 설명, 2) 대한약학회와 대한약사회가 약사직능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는지에 대한 2개 주제를 가지고 구두발표를 하였다. 이와 더불어 암스테르담 현지에서 한국의 밤을 개최하여 각국 약사회/약학회 대표들을 초청한 만찬과 프레젠테이션, 공연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다. 2012년 암스테르담 총회에서는 이 외에도 FIP 총회 역사 이래 처음으로 운영하여, 행사장내에서 한국과 대한약학회, 대한약사회에 대한 홍보를 총회기간 내내 운영하였다. 당시 대한약학회의 주도로 관광공사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를 얻어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한 것으로 기억한다. 2012년 10월 행사 마지막 날 오전에 정세영 회장 등과 함께 FIP 회장, CEP, secretary general 등과 함께 서울총회 개최에 대한 마지막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목표하였던 2016년의 경우, FIP의 대륙별 총회장소 규정 등에 따라서 불가하지만 2017년도 총회개최가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즉 FIP 서울총회가 잠정적으로 2017년에 개최되는 것으로 성공적인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것이다. 2012년 10월에 개최되었던 FIP 암스테르담 총회를 마친 후, 그 해 11월, 총회개최의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FIP 본부에서는 3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11월 13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현지방문을 하였다. 당시 관광공사에서 가이드를 고용하여 FIP본부 대표를 동반하도록 오유경 교수와, 본인이 방문기간 내내 총회장소로 사용될 호텔과 코엑스,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 등을 방문하는데 동행하며 대한약학회와 대한약사회의 사정이나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후 2012년 12월에 약사회장 선거가 끝나고 현 조찬회 회장의 취임 이후 2013년도부터 약학회와 약사회 공동대표로 구성되는 조직위원회가 정세영/백경신 조직위원장 체제로 가동되면서, 2013년 더블린 총회, 2014년도 방콕 총회, 2015년도 뒤셀도르프 총회에서 ‘한국의 밤’ 행사를 진행하여 왔다.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한국의 밤 행사를 주로 각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하여 만찬 위주로 진행하였고, 별도로 한국소개 전시부스(booth)를 운영하지는 않았다.

2015년 뒤셀도르프 총회와 2016년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에서는 한국부스를 운영함은 물론이고, 한국의 밤 행

사 규모도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로 치렀다. 본 저자는 이들 행사에서 사회자로서 활동하며, 각국 대표들과의 친교를 계속 유지해왔다. 또한 2017 FIP 총회 서울개최를 기념하고 홍보하는 의미로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에서 Korea session을 운영하였는데, 이때 영남대의 용철순 교수와 함께 좌장으로 활동하였다. 이 Korea session은 2017년도 서울 총회에서는 더욱 규모와 내실이 커져서 전체 총회를 풍성하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도 서울총회에서는 카운실 디너(council dinner)에서 한국측 대표로 참석하여, 당일 만찬시간 중 대만약사회장 곁에서 한국 약사회/약학회를 홍보하였으며, 행사기간 중 첫날 9월 10일(일)에 있었던 WPPF Board meeting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 9월 12일(화) WPPF Annual General Meeting에 한국 대표로 참석, 9월 14일(목) 저녁에는 Community Pharmacy Section dinner에서 한국측이 마련한 합창단 합창과 공연의 진행자를 맡았다. 그 외 행사와 관련하여 개폐회식 의전위원으로서 서울에서 열린던 다수의 위원회의 참석, 전체 회의 참석, 개회식 당일에는 VIP실에서 VIP영접활동 등을 수행하였고, FIP 본부와 한국대표측 사이에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연락책으로서 꾸준히 활동하였으며, 총회기간 중 9월 11일 기자회견, 9월 14일 오전 한국 대표-FIP HQ meeting에 참석하여 한국 대표단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맨 처음 FIP 총회의 유치를 위해서, 지난 수십 년간 FIP 총회를 꾸준히 참석하며 한국을 대표하였던 홍명자 박사 외 수많은 인사들, 유치단을 결성하여 암스테르담에서 활약했던 정세영, 이범진 교수 외 관련 인사들, 백경신, 전인구 조직위원장을 비롯하여 현 약학회장 문애리 교수, 약사회 조찬회 회장의 노고, 그리고 조직위원회를 비롯한 약학회/약사회 회원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서울에서 FIP총회가 열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금번 총회개최를 통해서 한국 약사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미 우리나라 약사의 위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습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들이 세계 약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약사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행사로서 FIP 총회의 의미는 매우 크다. 또한, 총회운영의 특성상 한국어로 진행되는 세션이 거의 없을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수회에 걸친 Korea Session을 진행하고, 한국의 약사들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점은 매우 인상 깊은 일이며, 다른 나라 총회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다. 다음은 지난 수년간 서울총회를 대비하여 참석했던 FIP 총회들의 모습을 정리하여 그 의미를 공유하고자 한다.

2012년 암스테르담 총회

세계약사총연맹(이하 FIP) 총회의 한국유치를 위해 대한약학회 대표로 정세영 회장, 이범진 사무총장, 오유경 국제협력위원장과 함께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RAI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FIP 100주년 총회에 다녀왔다. 대한약사회에서는 박명희 부회장, 박명숙국제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제약협회를 대표해 이경호 회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젊은약사모임(Korean Young Pharmacists Group, KYPG) 소속 회원들과 그 외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많은 약사들이 총회유치활동에 참여했다. 참가단은 총회기간 중 대한약학회·대한약사회 공동홍보부스 운영과 ‘한국의 밤(코리안 나잇)’ 행사를 통해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이런 행사들은 1968년 대한약사회의 FIP 가입(대한약학회는 2007년 FIP가입) 이후 45년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한국 행사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컸다. 한복입기 체험 등을 제공했던 홍보부스에는 총회전시장 중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FIP총회에 참석한 세계의 약사들에게 한국에 대해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홍보부스에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 비디오도 잠깐씩 틀어주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K-POP을 즐기는 모습에 흐뭇했다. 한국의 밤 행사에 FIP측 대표로 참석했던 de Jong교수가 막걸리를 따른 후 제의했던 건배사, 각국대표들과 함께 아리랑 노래를 불렀던 순간들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한국 홍보활동들에 대한 보답으로 총회 마지막 날 있었던 FIP 유치단과 한국대표단의 회의에서 FIP유치단은 FIP총회 한국 개최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다음달에는 한국 현지실사를 위해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 대표단이 목표했던 2016년개최가 여의치 않더라도 머지않아 한국에서 FIP총회가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총회의 개최는 단지 지난 몇 개월의 준비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대표단의 일원으로, 혹은 개인자격으로 지난 수십 년간 FIP총회에 참석하며 한국을 알려왔던 한국의 약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FIP총회의 한국개최는 우리나라 약계의 위상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더 나아가서는 머지않아 FIP 상임이사로 활약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2013년 더블린 총회

8월30일(금): 출발

지난 8월 30일(금) 정오경 20명 가량의 참가자들이 인천

공항 출국장에 모여들었다. 저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뒤로한 채, 지난 8월 31일부터 6일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렸던 제73차 FIP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이번엔 참가하는 인사들은 우리 약계에서 활약하는 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우선 대한약사회 조찬회 회장은 약사회회장 임기 중에 FIP 총회에 참석한 첫 번째 회장이다. 회장께서는 약사공론 전영구 사장, 의약품정책연구소 장석구 소장 등 두 분과 함께 미리 출국하여 스페인과 프랑스를 방문, 그곳 약사회, 제약공장 등을 방문하면서 국제협력의 물꼬를 텃을 뿐만 아니라, 총회기간 도중 다른 나라의 약사회장들과 면담을 가지며 우리 약사회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기회를 가졌다. 대한약학회도 서영거 회장(서울대 약대)과 정세영 전회장(경희대 약대), 이범진 전사무총장(아주대 약대)께서 대표단과 일정이 동일하지 않아도 FIP총회에 참석하시어, 2017년 서울총회 개최에 관한 FIP본부와의 양해각서체결에 동참하였고, 행사기간 중 지난 2011학년부터 시작된 약학대학 6년제 교육관련한 약학교육인증제 등, 약학교육에 관한 전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대한약사회 국제담당 이정현 부회장도 출국 일주일 전 당한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일정을 깰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긴 비행과 시차를 극복하며 총회기간 내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대한약사회 백경신 국제위원장은 대회 셋째 날인 9월3일 회원단체 발표시간에 ‘한국의 제약시장위기에 대처하는 대한약사회’라는 주제로 구두발표를 하였으며, 이 밖에 참석하신 교수들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하는 등 학회기간 내내 활발한 학술활동을 벌였다. 가천대학교 유봉규 교수도 FIP 총회에서 지역약국섹션 학술회에서 구두발표했으며 꾸준히 FIP 총회에서 활약하시는 분이다. 또, 대한약학회 홍명자 부회장님은 거의 30여년간 줄곧 FIP총회에 참석해 왔으며, 세계 약사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려온 민간외교사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한약사회 조선평 법제위원장, 국제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 분이 교수로서, 또는 개국약사로서 FIP 총회에 참여하였으며, 병원약사로 봉직하는 인천 성모병원 장진경 약제부장, 성바오로병원 윤지연 약제부장도 올해 처음 FIP 총회에 참여하였다. 작년에 열린 암스텔담 총회 때는 FIP 100주년기념 총회였기에 규모도 컸고, 한국의 젊은약사회(KYPG)회원도 여러 명 참석했는데, 올해는 젊은이가 보이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쉬웠다. 아마도 직항로가 없는 유럽도시에서 총회가 열린 까닭이리라. 인천에서 더블린을 향해 가는 길에는 항공스케줄 때문에 작년도 총회가 열렸던 네덜란드 암스텔담을 경유하였기에 작년에 참석했던 총회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고 스키폴 국제공항이

웬지 더 친숙하게 느껴졌다. 작년에 암스텔담을 향해 떠날 때만 해도 서울 FIP총회를 유치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했으나, 이제는 구체적 일정이나 세세한 것들을 제외하면 서울에서 2017년도 총회가 열리도록 확정되었으니, 겨우 1년 만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상념에 빠져들었다. 이번 FIP총회가 개최된 아일랜드는 우리나라 남한면적의 약70%, 인구는 5백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소국이지만, 10명 가까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저력을 지닌 국가이다. 지금 당장은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네 마리 용(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에 견주어 유럽에 있는 켈틱 호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올림픽을 비롯한 많은 국제행사가 전세계를 돌아가며 개최되는 이유는 이러한 국제행사를 통해서 개최국가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함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들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우리의 모습을 좀더 정확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8월29일 정오경에 탑승수속을 하고, 11시간 가량의 비행과 환승, 다시 2시간 가까이 비행을 마친 후 아일랜드 더블린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시각으로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은 8월29일 밤9시였다. 입국심사를 마치고 호텔에 다다랐을 때, 현지시각으로는 겨우 밤 10시가 조금 넘었지만, 시차를 따져보면 서울에서 밤을 새고 난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8월31일(토): 평의회

FIP 총회의 개막식까지 아직 하루 전이지만, 오늘은 FIP의 평의회(Council Meeting)가 있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대한약사회가 1968년에 FIP에 가입했고, 지난 2007년도에는 대한약학회가 FIP 정식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제는 한국대표자 두 명이 평의회에 참석한다. 이번 FIP총회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회 회장께서 약사회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평의회에 참석하였고, 대한약학회에서는 서영거 회장께서 참석하셨다. 잠시 FIP라는 조직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본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이내 다른 나라에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보이는 현대사회에 있어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논의되는 토론의 장으로서 정부조직들간의 협의체, 민간단체들의 협의체,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FIP는 세계적으로 약사직능을 수행하는 전문인이 머리를 맞대고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리로 볼 수 있다. FIP는 태생적으로 유럽에서 시작된 모임이었지만, 미국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규모도 커지고 학술활동이 더욱 깊이 있게 변화되었으며, 이후 일본이나 중국의 참여, 그리고 경제수준이 향상된 동

남아시아 제국의 참여 등으로 이제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세계 약업계를 선도하는 모임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FIP는 우리 약사들이 약사라는 전문인으로서 세계 약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외교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나라 약사의 위상을 다른 나라와 견줄 수 있는 자리이다. 때로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선진국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자리, 때로는 이미 선진국이 된 나라로서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세계의 이웃으로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4명의 평의원이 참가하는데 비해 우리는 이제 겨우 2명의 평의원이 있을 뿐이고, 회원국가로서 참여한 지는 오래 되었지만 아직까지 임원으로 활동하는 분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무척 아쉬운 점이다. 사실 평의회 자체는 이미 작성된 안건이 상정되고 표결에 부쳐지는 의례적인 절차일 뿐이다. 오히려 평의원들끼리 서로 친교하고, 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중간 휴식시간이나 저녁에 열리는 평의회만찬(Council dinner)이 더 중요한 자리이다. 평의회 단상에 앉은 임원 중에 한국인이 한두 명씩 보이는 날, 또한 FIP총회를 구성하는 8개의 전공섹션에서도 한국인이 이사로 활약하게 될 미래를 기대해 본다. 선진국이란 한두 분야에서만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가 아니라 사회 전분야가 발전되고 그 발전된 역량을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

9월1일(일): 개막식

총회 개막식이 열리는 날이다. 이미 하루 전인 8월 31일에 평의회와 평의회만찬이 열렸지만, 대부분의 참가자에게 어제는 ‘그들만의 리그’였을 뿐이고 오늘부터 공식일정이 시작되면 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순간이 시작된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약사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마당이 펼쳐진다. 개막식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장에 몰려드는데, 한복의 매력이 이렇게 컸는지 눈비비고 다시 쳐다볼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복차림의 우리 회원들에게 함께 사진 찍을 것을 청한다. 여느 관광지라면 우리 회원들이 일부러 그 불편한 한복을 입고 나가지도 않았을 테고, 잘 모르는 누군가가 다가와 사진을 함께 찍자고 청하는 것도 어려울 테고, 그런 청을 받더라도 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모두 각 나라의 약사들을 대표하여 온 자리니 서로 마음이 열려 오늘 처음 본 사람들이지만 오랜 친구들처럼 환한 얼굴로 함께 사진을 찍는다. 더블린 컨벤션센터(Convention Center Dublin, CCD) 대강당의 2천여 객석이 가득 찬 상태에서 시작되는 총회개막식, 아일랜드의 인기 토크쇼 앵커인 데이빗 하비가 사회를 맡아 FIP총회의 미셸 뷔크만 회장과 아일랜드 약사회장의 환영사 후에,

아일랜드 총리의 개최선언으로 시작된 행사는 ‘복합환자를 위한 미래비전의 제시’를 주제로 하였다. FIP 총회개막식을 살펴보면 국가원수급 지도자가 참석하여 개막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7년 총회가 개최될 때면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오늘 아일랜드 총리가 했던 개최선언을 하시게 될까, 기대해 본다. 개막식이 끝난 후 대만약사회 주관 회장리셉션(President's reception)에 참석했다. 대만은 회원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지만 항상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웃으로 역할을 담당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President's reception 중에 다시 한 번 한복의 매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고, 세계인들과 친구를 맺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9월2일(월): 총회

총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이다. 워낙 10여 개의 방에서 동시에 다른 주제로 학술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회장에서 길을 잃기 십상이다. 이런 학회장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언 한마디를 드린다면, 자기가 맘에 드는 섹션을 하나 찾아 들어가서 거기 앉아있거나(열공 모드),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섹션을 찾아가 보는 것이다(모험가 모드). 개국약사라면 지역약국분과(Community Pharmacy Section)가 맞는 분야이겠지만, 오히려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해 탐색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열공도 싫고, 모험가도 아니라면 학회장 밖으로 나가서 아일랜드와 그 수도인 더블린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관광 모드). 결국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즐거움을 얻고자 함이 아닐까? 공부하는 즐거움도 즐거움이요,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 역시 즐거움이다. 작년도에 통성명했던 이역만리에서 찾아온 약사를 올해 다시 만나고 그 친구와 잠시나마 대화를 나누는 것 역시 큰 즐거움이다(국제친선 모드). 월요일 학술장의 대주제는 ‘왜 환자들은 그리도 복잡한가? Why are patients complex?’였다. 환자의 복잡성을 생물학적, 의학적 요인 외에도, 민족별 특성, 경제적 능력이나 건강지식에 대한 습득 능력 차이에 따른 달라지는 행동/사회적 특성, 종교적 신념이나 전통에서 유래하는 문화적 특성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통찰하여야 한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회의 내용은 노령화, 다문화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약사들도 경청해야 할 사항이다. 낮 시간의 학술대회를 뒤로 하고 더블린의 기네스 스토어하우스(Guinness Storehouse)에서 환영리셉션이 열렸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기네스 맥주를 제조하는 기네스 공장을 통째로 빌려 FIP 총회 참가자들을 위한 리셉션에

사용한 것이다. 보통 환영리셉션은 개최국의 인상을 깊이 새길 수 있을 만한 장소에서 진행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앞의 열공 모드로 하루 종일을 보낸 분들에게도 최소한의 추억거리는 FIP총회에서 제공하는 셈이다. 실수로 태워버린 호프를 이용해 만들어 씹쓸한 맛을 갖는다는 기네스 맥주와 함께 더블린에서의 네번째 밤이 깊어갔다.

9월3일(화): 대한약사회 발표, 한국의 밤 만찬

총회기간 중에 있었던 여러 행사 중 이날 아침에 있었던 FIP Fun Run 을 빼놓을 수 없다. 아침 7시에 희망자들이 모여서 더블린 시내에 위치한 트리니티칼리지 교정 주위로 5 km 되는 구간을 함께 뛰는 이 행사는 작년 암스텔담 총회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이벤트인데, 약사회 조선평 법제위원장님이 미리 준비해온 운동화를 신고 함께 달렸다. FIP 총회 기간 내내 참가자들은 서로 만나서 먹고, 마시고, 달리고, 이야기하고, 함께 공부하는 것이다. 오전, 오후 중에도 학술회의장 곳곳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지역약국 섹션에서는 약사전문직의 미래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대개 하나의 섹션에서 주제를 잡아 학술토론이 진행되는 데 반해서 이 모임에는 지역약국섹션, 병원약국섹션, 젊은약사 모임과 약학대학생모임까지 함께 참여하여 준비한 토론이었다. 환자안전 및 치료효과 제고를 위한 의약품중재의 중요성과 각 직능간 상호협조의 필요성, 이러한 상황에서 약사의 역할이 논의되었고, 전자화되어 가는 의무기록의 상호호환성문제와 관련된 약사의 역할, 문제점과 기회 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대한약사회 백경신 국제위원장의 구두발표가 있었다. FIP 가입 단체 중에서 FIP 본부에서 선별한 단체가 각 30분씩 발표하여 상호간의 정보공유를 하는 이 시간 중에 백위원장은 지난 2012년도에 변화된 약가제도와 이에 따른 한국의 제약시장의 모습을 보고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한약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세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 질의응답시간에는 특히 한국의 6년제 교육에 대하여, 지역약국의 약학교육 참여에 관하여, 그리고 한국에 존재하는 한약사제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러한 발표를 통해 다른 나라의 여건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동시에 살펴보면 우리나라 약사의 위상이 어떤 부분에서는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매우 높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의 전문성이 더 크게 성장해야 할 부분도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이 외에도 이번 총회에 참가한 약학대학 교수님들의 포스터발표가 학회 전시장에서 진행되었는데, 영남대 용철순 교수는 항암성분인 도세탁셀을 충전한 PLGA 나노입자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네 개의

포스터를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저녁에는 조찬회 대한약사회장 주관으로 한국의 밤 만찬이 개최되었다. FIP 회원국가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태평양지역약사회연합(WPPF) 회원국 대표들과 FIP 본부인사들을 초청한 이 자리에서 회장님은 만찬사를 통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약사회의 모습, 2017년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약속하였다. 이 만찬 시간을 통해서 WPPF 회원국 대표들과의 우애가 더욱 커졌으며, 매일 저녁 다른 일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였던 총회 참가자들끼리도 함께 모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9월4일(수): 서울 FIP총회 개최 MOU 서명식

비록 총회일정은 목요일 저녁까지 예정되었지만, 이번에 참가한 한국대표단 대부분에게는 이날이 마지막 공식일정이었고, 9월5일에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다. 참가단 중 조찬회 회장과 서영거 회장을 비롯한 한국대표단은 낮에 2017년 서울총회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통해서 2017년도에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것, 대한약사회와 대한약학회 2개 단체가 합심하여 지역조직위원회(LOC)를 구성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FIP 총회의 모습은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이 변화하고 있다. 작년도에는 100주년을 맞이하여 암스텔담에서 개최되면서 FIP총회와 같은 시기에 세계보건장관회의와 함께 개최된 바 있으며, 이 회의를 통해서 적절한 의약품의 사용이 의료비용 절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 올해에는 작년도에 있었던 세계 보건장관회의의 후속단계로 전세계 chief pharmacist's meeting (국가별로 파견된 대표약사회의로서 민간차원이 아닌 정부기관을 대표하는 약사들의 모임)이 이곳 더블린에서 FIP총회와 함께 개최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7년도에 FIP총회가 개최될 때에도 전세계 보건장관회의가 함께 열릴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에 거는 기대가 몹시 크다. 국제대회나 국제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으며, 어쩌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위상이 세계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며 이러한 행사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약사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면서 세상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관심 없이 사는 모습을 버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나라에게 세계이웃으로 손을 내민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날 오전에 학회장 다른 편에서는 지역약국섹션 운

영위원회에 가천대학교 유봉규 교수가 참석했다. 올해에는 위원회 상임이사단에 결원이 생겨 한국인이 이사단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2년 이상 연속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한국인 이사가 탄생하지 못했다. 지역약국 섹션뿐만 아니라 다른 섹션에서도 한국인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이사로 진출하는 모습을 향후 몇 년 이내에 기대해본다. 원래 마지막 날 만찬에 전부 참여하면 좋았을 텐데, 올해는 일정상 불가능했다. 물론 마지막 만찬까지 참여하한 분도 계시지만, 한국대표단 대부분은 마지막 만찬 전날 밤에 열린 지역약국 섹션 만찬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식사와 함께 각 나라별 개국약사들이 한데 어우러져 친교하고, 만찬시간이 무르익어갈 때에는 나라별로 각기 준비해온 노래를 함께 부르는 장기자랑시간을 가졌다. 대한민국 참가단은 카펜터스의 탐오브더월드와 우리민요 밀양아리랑을 함께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약사공론 전영구 사장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러브미텐더를 열창하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박수갈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약사로서 민간외교에 참여하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임에 틀림없으며 짧지 않은 FIP총회 참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복한 순간이었다.

2014년 방콕 총회

8월 30일(토): 출발

지난 8월30일(토) 늦은 오후, 20명 가량의 약사들이 인천 공항 출국장에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저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뒤로 한 채, 8월 31일부터 6일간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열렸던 제74차 FIP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이보다 하루 앞서 대한약사회 조찬회 회장은 의약품정책연구소 장석구 소장, 대한약학회를 대표해서 참석하신 정세영 전회장, 대한약사회 국제위원장과 함께 남들보다 하루 먼저 출발하여 토요일부터 진행된 FIP 평의회에 참석하였다. 조찬회 회장은 역대 약사회장 중에서 처음으로 FIP총회에 참석하신 분이며, 벌써 두 번째 참석이시다. 이번 총회에 참가하는 한국인들을 살펴 보면, 우리 약계에서 활약하는 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전영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과 이범진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아주대 약대),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용철순(영남대 약대), 주상훈(대구가톨릭대 약대)교수를 비롯한 여러 교수들, 조선남 대한약사회 법제위원장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FIP 총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는 단골 손님이다. 대한약

학회 홍명자 부회장은 30년이 넘도록 FIP총회에 개근하신 분으로, 세계 약사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려온 민간외교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외에 많은 국제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하였다. 작년에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던 한국의 젊은 약사회(KYPG) 회원들도 올해는 5명이 참석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FIP총회에 참석하한 이들 중에는 약사회 안팎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이가 많이 보인다. 김현태 부회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이광섭 한국병원약사회 회장, 경상남도의회 김지수 의원도 함께 하는 등 FIP 총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인원으로는 볼 때 사상최대의 한국인이 참석한 뜻 깊은 총회였다. 지리적으로 유럽보다는 가까운 태국에서 열려 상대적으로 여행경비도 저렴하고, 또한 2017년도 서울 개최 결정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약사들의 관심을 받는 총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 6시간 가량 비행을 마치고 방콕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일요일 새벽이 깊었지만, 이야기 꽃을 피우느라 밤새는 줄 몰랐다.

8월30일(토): 평의회

대한약사회 FIP참가단보다 하루 먼저 출발했던 조찬회 회장과 정세영 전회장은, 8월 30일부터 양일간 열린 FIP평의회에 참석하였다. 올해 평의회에서는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마친 미셸 뷔크만(Michel Buchmann) 회장의 후임 회장 선거는 물론 부회장단 선거가 함께 있었다. 그 동안 유럽이나 미국에서만 회장이 나오던 관행을 깨고 새로운 회장이 다른 대륙에서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하였으나 결국 스페인 약사회장인 까르멘 페냐(Carmen Pena)가 당선되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임기 동안 회장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100년이 넘는 부회장 선거에서는 기존 태국의 티라 차카나로돔(Teera Chakajarnarodom) 대신에, 이웃나라 일본 약사회장인 노부오 야마모토(Nobuo Yamamoto)가 당선되어 아시아의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게 되었다. 머지 않아 평의회 단상에 앉아 있는 임원 중에 한국인이 한두 명 보이는 날, 또한 FIP총회를 구성하는 8개의 전공섹션에서도 한국인들이 이사로 활약하게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이번 평의회에서는 드디어 2017년도 FIP총회의 서울개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총회의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했는지 모른다. 이번 FIP총회는 2017년 총회의 서울개최가 공식발표된 총회, 한국인이 역대 가장 많이 참석한 총회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8월31일(일): 개막식

개막식이 열리는 날이다. 모두 각 나라의 약사들을 대표하여 온 자리인지라 처음 본 얼굴도 그렇게 서먹하지 않다.

또한 작년에 만났던 참가자들을 다시 올해 또 만나게 되면 국적을 떠나서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방콕 국제무역전시장(Bangkok International Trade & Exhibition Centre, BITEC) 대강당에서 열린 개막식. 미셸 뷔크만 회장의 개최 선언으로 시작된 총회는 ‘의약품과 약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총회는 지난 몇 년간 관례를 벗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개막식에 참석하는 국가원수급 지도자가 보이지 않은 것이다. 작년도에는 아일랜드의 총리가 참석했고, 재작년 네덜란드에서는 공주가 참석하여 개최선언을 하고 개막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는데, 올해 방콕의 경우 태국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탓인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아무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불안한 이런 모습을 세계에서 모여든 손님들은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2017년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최선언을 기대해 본다. 개막식이 끝난 후 조찬회 회장은 각국 약사회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2017년 서울개최 발표를 축하하는 디너파티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회장은 서태평양지역약사회연합(WPPF)회원국인 호주, 일본, 필리핀 등의 약사회장과 함께 아시아지역 약사회의 연대, 2017년 FIP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였으며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9월1일(월): 학술행사

이번 총회에서도 한국에서 참가하신 분들의 포스터발표 11건, 구두발표 1건이 있었다. 특히 용철순교수의 경우 해마다 많은 수의 포스터 발표를 해왔고, 올해는 “Novel dual drug loaded block ionomer complex micelles to synergize the combination treatment” 라는 주제로 구두발표를 했다. 예년까지의 한국인 참가자의 구두발표는 그 수도 적고, 학술분야가 아닌 분야에서만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학술분야에서 구두발표를 한 것이다. 유봉규 교수의 경우 지역 약국분과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데, 올해도 한국대표로 CPS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고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FIP 총회에서는 학술행사라는 것이 소위 학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각국의 약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서로 다른 조건과 환경 안에서도 결국은 비슷하다. 우리나라 각 지역 별로 실시하는 학술제에서 관심을 받는 분야나 연구결과들도 어쩌면 전세계 다른 약사들에게도 깊은 의미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GPP의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사례보고를 들으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총회기간 중에 각국의 약사들이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는지

에 대한 문의가 한국에서 날아왔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세워서 물어보며 현황파악을 할 수 있었다.

9월1일(월): FIP본부-한국대표단 회의

FIP본부 대표단과 조찬회 약사회 회장과 정세영 약학회 전회장 등으로 한국대표단은 2017년 서울에서 개최할 총회 행사와 관련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조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찬회 회장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잔치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북적이는 자리이므로 되도록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FIP본부 대표단에 요청하였고, FIP본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FIP본부 대표단은 올해 중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총회장소로 사용될 코엑스와 주변 호텔 등의 시설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함께 개최할 예정인 전세계 보건장관회의를 위하여 복지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전세계 보건장관회의는 5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국제회의이며 지난 2012년도에 FIP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총회와 나란히 열린 바 있다. 이 회의는 우리나라의 복지부가 FIP와 함께 협의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의 보건장관들의 공동관심사가 될 수 있는 회의 주제를 선정하게 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의 기대 또한 몹시 뜨겁다. 내년부터는 FIP 총회에서 제공하는 전시장 부스를 이용하여 2017년 서울총회의 홍보가 진행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지난 몇 년 사이 놀라볼 정도로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전세계에는 서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총회 개최를 통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약사들에게 서울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간 서울을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것이다. FIP총회가 전세계 약사들의 잔치인 만큼 이런 일에서 우리나라 약사들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다.

2015년 뒤셀도르프 총회

올해의 FIP 총회 일정 및 장소는 2015년 9월 29일(화) ~ 2015년 10월 3일(토) 동안 독일의 뒤셀도르프에 있는 뒤셀도르프 Congress Center (DCC) 였다. 한국대표단 참가규모는 총회 등록인원만 49명이었다. 여행일정은 9월 26일 토요일 낮과 9월 28일 월요일 새벽까지 다양한 시간대에 출발하였고, 귀국일은 10월 3일 토요일 낮 독일 현지지를 출발하여 10월 4일 일요일 낮 인천공항 도착했으며, 10월 5일 낮에 백경신 부회장이 도착하였다. 중요 일정으로는 9월 28일 월요일에 평의회가 개최되어 조찬회 회장과 손의동 대한약학회장이 등이 참석하였다. 9월 29일에는 총회개회식 및

환영리셉션이 있었고, 9월 30일부터 학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Korean Night에는 대한약사회 및 약학회 인사는 물론, 각국 약사회장이 초대되었고, 조찬회 회장과 손의동 회장, IMS헬스 코리아 허경화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FIP 측 대표인 Andy Gray 박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조직위원장을 소개한 뒤 한국민요와 독일민요를 제창하였으며 한국의 문화와 관광을 소개하였고 이 자리에는 함께 독일로 출발한 독일 출신의 이참 홍보대사 외 다수가 동석하였다. 10월 1일에는 바이엘 본사를 방문 및 견학하였고 돌아오는 길에 독일 현지 개인약국들도 견학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가천대 유봉규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FIP 지역약국분과 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되었다. 다음달 10월 2일에는 다채로운 학회주제를 참가자 개별적으로 참석하였고, 저녁에는 지역약국분과 만찬파티에 참석하였다. 이어 마지막 날인 10월 3일 토요일에 독일 뒤셀도르프 공항을 출발하여 귀국하였다.

2016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

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5일간 이역만리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던 2016년 FIP 총회에서는 ‘Reducing the global burden of diseases - rising to the challenge’라는 주제로 다양한 학술발표와 회의가 열렸다. 개막식에서 FIP회장 카르멘 페냐(Peña)는 질병의 예방과 건강의 증진에 약사의 역할이 막대함을 강조하였다. 전세계 인구의 사망원인 1위부터 10위까지에서 무려 9가지가 심장질환, 뇌졸중, HIV/AIDS,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당뇨병, 설사 등과 같은 질병들이다. 선진국에서는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 문제가 큰데 반해, 개발도상국에서는 말라리아, 설사 등의 감염질환이 생존을 위협하는 실체이다. 이러한 질병들은 단순히 사망 원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따라 발병기간 내내 고통을 안겨주어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질병을 글로벌 문제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실은 약사를 비롯한 보건 의료인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일 수 밖에 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질병들 대부분이 약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약사들의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해진다. 그런 점에서 질병의 예방과 건강의 증진에 약사의 역할은 막대하며, 약사 직능도 이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해 총회의 주제이기도 한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은 올해 역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근거중심의학은 의약품 사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소셜미디어, SNS를 통한 약사의 소통 역시 21세기 변화

하는 시대에 필수적인 활동으로, 트위터나 블로그를 통한 약사의 소통, 또한 영국약사회에서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는 약사 교육 등 다채로운 미디어 활용이 소개되었다.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약사의 역할과 직능은 세계 곳곳에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보건의료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필자가 교수로서 지난 세기 학생시절 받았던 교육과 지금의 대학교육을 보면 현격한 차이를 느낀다. 예전에는 교수자의 교육만 강조되었다. 막상 교육대상인 학생은 수동적 존재였고,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엇을 가르쳤는지 보다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갔는지, 수업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보건의료계에서도 아마 이런 변화는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다. 약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약사의 역할을 통해서 환자/소비자가 무엇을 가져갔는지, 환자/소비자가 어떤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는지 묻는 시대가 되었다. 약국 약사로서 이러한 변화되는 역할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그 중 하나는 일반대중의 건강지식 확대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많은 나라의 일반대중은 건강관리와 관련한 기초적 의사결정 능력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는 효과적인 질병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밖에 없다. 약국약사가 환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제된 정보는 효과적인 질병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지식이 될 것이다. 건강증진과 관련한 협회 차원의 캠페인(서울시약에서 진행하는 '약사에게 물어보세요'는 좋은 예), 개별약국의 캠페인 역시 의약품은 물론, 건강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분명하다. 무엇보다 현재 약사의 기본직무 중 하나인 조제업무에서 변화해 가는 약사 직능의 정신, '환자중심, 건강중심'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고찰 및 제언

지난 2012년, FIP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한 유치위원회가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열린 FIP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 FIP회장단을 만나고, 총회기간 중에 각국 약사회장들을 초대하여 처음으로 Korean Night을 개최하는 등 유치활동을 시작한 것이 얼마 전 같은데, 이제는 서울총회까지 모두 성대히 종료되었다. 대부분의 약사와 약학대학 교수들에게까지 FIP라는 단어는 아직도 낯선 이름이다. 기사를 검색해보면 FIP를 '세계약학연맹' 혹은 '세계약사연맹'으로 번역해 놓았다. 우리나라 '약사윤리강령'에 약사를 '약학의 전문가'로 강조하였으니 어쩌면 두 표현 모두 일리 있

는 말이다. 어쨌든 수많은 학회와 총회 모임이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무수한 날에 서울 코엑스에서는 각종 학회가 열리는데, 대체 FIP총회의 서울개최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궁금해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우선 대한약사회를 생각해 보면, 약사회에 변화나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는 있겠지만, 대체 이게 필요한 조직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변듯한 약사회를 보유한 국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세계를 크게 6개의 권역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지역에 속한다. 그리고 서태평양지역에 속한 30여개국 중에 약사회가 존재하고, 원활히 활동하는 국가는 채 10개가 되지 못한다. 약사회에 대해 많은 이견과 의견이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약사들은 약사회라는 조직의 울타리를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약사회를 통해서 약사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 약사에게는 평상시 실감하지 못할지라도 큰 혜택이다. 아직도 완전히 종결되지 못한 화상투약기 문제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해보기도 어려운 아이디어를 정부에서 내놓아 불만이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 단체를 통해 집단의 목소리를 전파할 수 있다. 정부 및 사회가 약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는 이유는, 약사회가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닌 중요한 직능단체이자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약학연맹(FIP)을 살펴보자. FIP는 전세계 약사/약학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학회와 약사회가 각각 회원단체로 가입 중이고, 세계적으로는 139개의 단체가 가입해있다. FIP는 국제비영리민간단체로서 세계보건기구(WHO)와는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귀중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세계연합이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에 영향력을 행사하듯이, WHO는 세계인의 건강증진에 있어 국제사회가 지켜야 할 표준을 제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러한 활동의 파트너로서 FIP가 분명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각 국가별 보건의료제도는 너무도 다양하지만, 약사역할에서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영역과 표준이 존재한다. 또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절에 약사의 역할은 많은 변화와 도전을 요구 받으며, 이러한 새로운 역할들이 세계수준에서 효율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WHO와 FIP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활동과 관련, 때로는 우리나라가 앞선 나라로서, 때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로서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마당이 곧 FIP 총회이고, 이런 FIP총회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렸다는 것이다. 지난 서울에서의 88올림픽 개최는 어떤 의미였는지 상기해보면, 사실 우리 각자는 그곳에서 선수로 참가하지도 않았

고, 메달을 딴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기억에도 88올림픽이 한국민을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 세계 무대 속으로 걸어 들어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는가? 우리나라 수만 명의 약사들, 혹은 수백 명의 약대 교수들이 전부 지난 FIP서울총회에 참석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FIP서울총회가 한국 약사와 약학을 글로벌 수준으로 안내한 기회였음은 간과할 수 없다. 전 세계를 둘러봐도 1주일에 공식신문을 두 번이나 내고, 비록 인터넷 매체이지만 자체 방송국을 보유한 약사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드물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높은 역량의 약사회와 약사회를 구성하는 최고수준의 약사들, 이제 우리나라 밖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배워 올 것은 배워 오고, 또한 세계 시민으로서 가르쳐 줘야 할 것은 즐겁게 가르쳐주는 글로벌수준의 약사, 약사회로 거듭나는 원동력이자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비록 소수였지만 젊은 약사들과 약대생들에게는 한 가지 더, 지구 반대편에서 찾아온 약사들과 우정을 나누는 즐거움도 누렸을 것이다. 이번 FIP서울총회의 개최효과와 진정한 성과는 몇 마디의 미사여구로 성급히 표현하기 보다는 차분히 기다리면서 다음 세대가 평가하도록 보류해두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약사공론 기사. 세계약사 축제 FIP 서울총회, 언론들도 주목했다(2017-09-16).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87161&table=article&category=&search=title&keyword=FIP&page=1&go_back=1 (Accessed on October 30, 2017).
- 2) 약사공론 기사. 약사회·약학회 FIP 활동 참여 확대 등 추진 (2017-09-14).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87102&table=article&category=&search=title&keyword=FIP&page=1&go_back=1 (Accessed on October 30, 2017).
- 3) 약사공론 기사. FIP 한국인 최초 상임이사, 지역 약국의 미래를 말하다(2017-04-13). http://www.kpanews.co.kr/article/youth_show.asp?idx=459&table=column_youth&category=&search=title&keyword=FIP&page=2&go_back=1 (Accessed on October 30, 2017).
- 4) 약사공론 기사. WPPF '2017 FIP 서울총회' 적극 참석 약속 (2017-03-28).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82359&table=article&category=&search=title&keyword=FIP&page=3&go_back=1 (Accessed on October 30, 2017).
- 5) 약사공론 기사. 100여년 역사, 세계 약사들의 위상 높인 국제 기구(2016-11-07).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78503&table=article&category=&search=title&keyword=FIP&page=3&go_back=1 (Accessed on October 30, 2017).
- 6) 약사공론 기사. 약사학술제-Pre Fip-창립60주년기념식-팜엑스포 '한자리에'(2014-10-07).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57269&table=article&category=&search=title&keyword=FIP&page=5&go_back=1 (Accessed on October 30, 2017).
- 7) 약사공론 기사. 2017년 FIP 세계총회, 서울 개최 결정 (2013-09-05).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45680&table=article&category=&search=title&keyword=FIP&page=6&go_back=1 (Accessed on October 30, 2017).
- 8) 약사공론 기사. 대약, 약학회와 함께 FIP총회 성공적 유치에 '적극' 나선다(2013-04-02).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40933&table=article&category=&search=title&keyword=FIP&page=6&go_back=1 (Accessed on October 30, 2017).
- 9) 약사공론 기사. FIP 100주년 총회 개막...약사·약학자 4천여명 참석(2012-10-05).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35838&table=article&category=&search=title&keyword=FIP&page=6&go_back=1 (Accessed on October 30, 2017).
- 10) 조선일보 기사. FIP 총회 이끈 대한약사회·대한약학회 (2017.09.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4/2017091402274.html (Accessed on October 30, 2017).